

대학생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혜진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실 조교수)**

이승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이 창업을 결심하기까지의 전주기 과정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즉 창업활동에서 비롯된 개인의 창업관심과 자녀의 창업에 대한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계획적 행동이론의 구성요소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요인 간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각 요인이 미치는 중요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또한 본조사에서 국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18부를 제외하여 총 282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SPSS 26과 AMOS 26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 창업교육은 계획적 행동이론의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생이 창업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활동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러한 관심이 호의적 태도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와 연계될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창업관심, 부모의 창업관심, 계획적 행동이론(TPB), 창업의도, 대학생 창업

1. 서론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경제악화로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취업의 대안으로 혹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템을 통해 본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선량·허철무, 2019). 또한 젊은 세대의 직업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청년 창업률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은 무조건 높은 연봉보다는 적성이나 성취감에 기반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적성(흥미) 일치도, 일의 기술 수준을 직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정도범, 2019). 이처럼 청년층이 직장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요인이 변화하면서 신규 고용시장의 핵심인 대학생들 역시 창업을 새로운 진로이자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창업활동이란 창업을 포함하여 창업동아리, 크라우드펀딩, 창업공모전 참여 등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

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대학생들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창업활동을 통해 창업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스스로의 적성이 창업과 부합하는지,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창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우수한 창업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창업강좌 이수,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멘토링 등을 접하는 일련의 양상이 모두 창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창업활동의 유무나 횟수가 아닌,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창업의도를 향상하였는지 그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가지게 된 창업관심이 창업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만 이를 기반으로 발전된 창업활동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창업을 다룬 기존의 연구 중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저자 안혜진의 박사학위논문(2024)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내용임.

** 저자,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실 조교수, ahj332@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인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학과 교수, shpoem@naver.com

투고일: 2024-01-14

수정일: 2024-02-14

게재확정일: 2024-02-26

문화예술계열의 대학생들은 타 전공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처우에 놓여있어 창업을 시도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창업의도 간 인과관계를 복합적으로 탐색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진로와 직업결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신상훈 외, 2020; 최재혁·이용택, 2018), 창업 분야에서는 아직 관련 주제의 연구가 미진하다. 그러나 대학생 창업에 있어, 청소년 후반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온전히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의 창업활동에 대한 단일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희소하다. 반면 본 연구는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창업관심 뿐 아니라 창업자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가지는 창업관심, 즉 자녀가 창업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끼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관계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3: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서 국내 대학생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연구문제 2를 통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을 매개요인으로 두고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설명한다. 이는 행위자 기반 모형 연구를 통해 요인의 효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으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변인으로 하여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TPB를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이하 ESE)’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ESE는 역할과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창업자의 자신감과 믿음을 의미하며(Zhao et al., 2005),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Sahin et al., 2019; Schmutzler et al., 2019).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과 중요도를 검증하여 대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창업관심과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창업의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이 되어줄 것이다.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문화예술계열 대학생 창업을 조명하여 해당 분야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학술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PB 이론을 창업 분야에 적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던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관심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의 관심(A person's interest in entrepreneurship)은 창업의도의 선행단계이며, TPB에 따르면 의도는 행동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창업관심은 창업의도를 거쳐 창업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다(Luis-Rico et al., 2020; Paço et al., 2011).

김영서·홍세희(2021)는 창업관심이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조운아 외(2015)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흥미 및 창업여부에 대한 의지로 창업관심도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관심(Interest of Entrepreneurship)을 ‘창업활동에 대한 주의 또는 흥미’라고 정의하였다.

이재훈(2013)은 창업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자주 노출될수록 창업관심이 높아진다고 말하였으며, Lanero et al.(2015)은 대학생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김종운(2014)은 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동기에 따라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적극적 의지로 창업에 관심을 가진 경우보다 가업승계와 같은 사유로 창업에 관심을 가질 때 창업의지가 낮다고 하였다. 이는 창업관심이 창업활동이나 창업의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Schmitt-Rodermund(2004)는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창업활동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창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활동과 연관된 창업관심이 창업의

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창업관심이 이전의 창업경험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한다. 즉 창업이나 창업동아리, 크라우드펀딩 등의 경험을 접하는 과정에서 창업관심이 발현되거나 이전보다 관심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Fayolle & Gailly(2015)는 청년의 창업관심을 형성하는데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영향력을 주목하였다. 이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모델화가 미치는 중요성을 알아본 것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창업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영향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uis-Rico et al.(2020)은 가족요인과 같은 관계적 요인이 청년의 창업관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창업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창업자 유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창업경험 또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창업)에 가지는 관심이 자녀의 창업관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영향은 창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Scherer et al.(1989)이 경영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창업자일 때 자녀가 기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확률이 근로자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Niittykangas & Tervo(2005)의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자녀가 가족 회사를 물려받으려는 경향이나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조지혜(2021)는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서 있어 중요한 개입요인 중 하나가 ‘부모 및 사회적 지지’라고 말하며, 대학생이 창업결정을 할 때 부모의 지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부모의 사업 성공경험이 자녀의 창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n & Holtz-Eakin, 2000).

여러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창업관심이 창업행동이나 창업의지와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창업 유무와 창업관심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Gird & Bagraim(2008)은 창업의도의 예측변수 중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Mungai & Velamuri(2011)는 부모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자녀가 창업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계은 외(2017)는 부모가 창업 과정에서 겪은 위험, 압박 등을 자녀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성되어 창업의도가 오히려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창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2.2. 계획적 행동이론(TPB)

Ajzen &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은 인간의 행동이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이론이다(이선미, 2011).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는 Ajzen(1991)이 TRA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비동기적 요인을 추가하여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행동의도 예측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모델로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정환·김남조, 2021).

Ajzen(1991)의 TPB에서 제시된 세 가지 변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는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신념을 통해 형성되며 행동의도의 원인변수로 볼 수 있다(김상범 외, 2018). 특히 개인의 태도는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세 가지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기능하며(Ajzen, 1991),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Liñán & Chen, 2009; Al-Jubari et al., 2019; Barrios et al., 2022).

둘째, Ajzen(1991)에 의하면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압박에 대한 의식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행동을 결정할 때 소속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구성원에게 원하는 기대에 대한 ‘규격화된 신념(normative belief)’과 신념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기대에 맞춘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로 결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국내에서는 주관적 규범에 대해 “개인의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나(김홍범 외, 2012),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에게 받는 지각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며, 또한 특정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정의하여(정대용 외, 2018), 주관적 규범이 사회적 압력과 유사한 의미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의미한다(Ajzen, 1991). 이는 기존 사회심리학의 자기효능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인지하는 정도이며 시간, 돈 등의 외적 요소와 개인의 능력과 같은 내적 요소를 포함한다(조성환 외, 2009). Bandura(1977a; 1977b)의 자기효능감에서 출발한 만큼 자기효능감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Bandura, 1982), 지각된 행동통제를 자기효능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Kolvereid & Isaksen, 2006).¹⁾

1) 이 연구에서 ‘According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s not only associated with intentions to become self-employed (as suggested in Hypothesis 2b)’라고 서술하여 지각된 행동통제와 ESE를 ‘또는(or)’으로 묶어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메타분석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행동통제보다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고 의도 및 행동과 더욱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rmitage & Conner, 2001),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통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Ajzen, 2002).²⁾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외부 통제 요인에 해당하지만 ESE는 내부 통제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Maheshwari & Kha, 2022), 두 요인은 상이한 요인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전자의 경우 완료해야 할 행동을 쉽거나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의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특정 행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개인의 자신감을 뜻하는 것이므로 의미의 범주에도 차이가 존재한다(Armitage & Conner, 2001; Tsai et al., 2016). 이처럼 두 요인 간 차이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요인 간 명확한 관계성을 파악할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Heuer & Kolvereid(2014)는 TPB에 기반한 창업행동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Gieure et al.(2019)은 TPB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점이 널리 수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국내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TPB에 입각한 의도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창업연구가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정대용·한관섭, 2012). 이에 따라 TPB는 새로운 벤처의 출현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배적인 심리학 이론이자(Van Gelderen et al., 2015), 창업 의도 및 후속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연구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Kautonen et al., 2015).

TPB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된다(정헌배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활동에 기반한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심리적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태도·인식·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TPB를 매개요인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3. 창업자기효능감(ESE)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인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Boyd & Vozikis(1994)가 자기효능감을 창업 분야에 적용하면서 생성되었다. Boyd &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을 기업가적 성취의 예측인자이자 창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며, 창업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ESE가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최근 자기효능감이 사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Ozaralli & Rivenburgh, 2016; Nikou et al., 2019), 창업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업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언급될 정도로(Shaker, 2018), ESE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국 ESE가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역할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수준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이후 자기효능감을 창업이라는 특정 영역에 적용한다면 ESE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다.

Alsaidan & Zhang(2018)은 ESE가 직업 지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창업의도, 창업지식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Zhao et al.(2005)은 ESE가 창업경험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ESE는 창업 연구에 있어 매개·조절변수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학생의 ESE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현선혜 외, 2016).

ESE에 대해 Boyd & Vozikis(1994)와 Scherer et al.(1989)은 창업자로서 맡아야 할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Torres & Watson(2013)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기술·지식을 활용하려는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ESE를 ‘창업자가 창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감 또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2.4. 창업의도

Nench(2022)는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으로, 의도는 인지 상태로 간주하며 창업의도를 벤처 수립 전 먼저 보이는 심리적인 성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의도를 이해하면 창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Galanakis & Giourka, 2017).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의 선행적인 요인이자 중요한 개념이며(Krueger, 1993), 창업과정을 이해하고 토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경, 2019).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rueger et al.(2000)은 의도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며 이를 계획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창업의도란 새로운 조직에 대한 창업자의 비전과 그 이후의 기업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Crant(1996)는 창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창업의도는 첫 번째 단계로써 창업자가 스스로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평가 과정이라고 하였다. Pretorius et al.(2005)은 창업의도에 대하여 가까운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Hmieleski & Corbett(2006) 또한 성장률이 높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2) 심상훈·정경일(2021)은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이 개인의 통제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Ajzen(2002)이 지각된 행동통제를 자기효능감과 행동 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인용하였다.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벤처와 같이 혁신적이고 성장률이 높은 사업을 의미한다(Ozaralli & Rivenburgh, 2016; Nikou et al., 2019). 즉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창업의도란 벤처를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들은 창업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윤영집·이종원(2022)은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창업할 가능성을 가지는 태도가 창업의도이며 조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 역시 창업의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창업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실제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정의한 장현철·김종성(2021)과 “당장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창업을 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복돋워 주고, 향후 특정 상황 또는 조건에 처했을 때,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의 정도”라고 서술한 양준환·김준광(2020)이 있다. 더불어 이신남(2014)은 창업의도가 창업에 대해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측정되는 인지된 바람직한 방향성과 창업에 대하여 느끼는 인지된 타당성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조영조·이보영(2016)은 창업의도의 원어라 할 수 있는 ‘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대해 국내의 학자들이 이를 ‘창업의지’와 ‘창업의도’로 해석하여 사용한다는 학술적 흐름을 짚으며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창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하기에 계획적인 행동과 의도를 필요로 한다(Katz & Gartner, 198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창업 과정에 있어 첫 시작을 의미하는 ‘계획’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홍석(2020)은 창업의도에 대해 “창업을 희망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성향으로 창업에 대해 느끼는 욕구 및 가능성의 정도”라고 정의하며 TPB를 포함하여 Bird(1988)의 ‘창업의도 모델(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모델(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Model, 이하 SEE)’ 등을 창업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SEE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중점을 둔 이론적 모델로(Shapero & Sokol, 1982),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이는 이 모델이 창업의도의 형성을 설명하는 의도기반 모델이자(안은주·양동우, 2020), 의도(intentions)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창업과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Bird, 1988).

최근 대학생의 창업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데 주목하거나(김윤선·이일한, 2022; 최옥희 외, 2017; 윤영집·이종원, 2002),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Saced et al., 2015), 대학생의 창업전주기를 이해하는 데 창업의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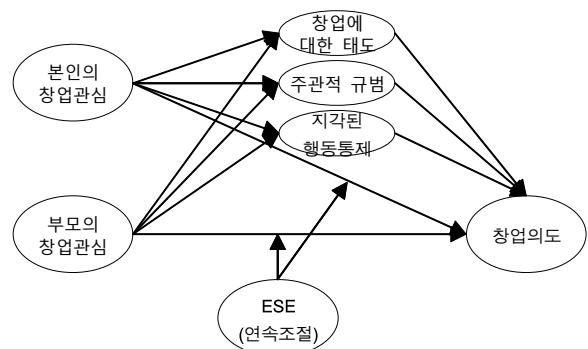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된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대학생이 효과적인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때 TPB는 매개변수로, ESE는 조절변수로 기능하는데 이와 같은 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창업에 대한 행동과 창업의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TPB를 활용하였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에 대한 행동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또는 부모가 창업활동을 경험하면서 생성된 관심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TPB의 요소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적 동기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TPB 요소의 매개적 중요도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를 다수 보였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내재된 기술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중개변인으로 인간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Bandura, 1986). 그러나 ESE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매개변수로 기능하는 ESE에 주목하여(김상수·임왕규, 2017; 정대용·김재형, 2017; 정행로·양동우, 2021), ESE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수는 드물기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ESE가 강화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SPSS 26과 AMOS 26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최적화로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잠재변수를 계량적으로 관찰한 측정지표를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함으로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이 유용하기 때문이다(김진호 외, 2007). 이를 활용한 연구가설 및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관계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창업 관련 교육이 참여, 창업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창업참여도(entrepreneurial participation)라고 일컫는데 이때 창업참여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적 과정 지향적 관점으로 살펴보려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대용 외, 2013). 이에 따르면 창업이라는 전 과정은 창업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관련 교육 등의 창업활동을 거치며 초기의 창업관심이 더욱 커져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려는 창업의도가 지 나아가게 된다.

유봉호(2015)는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창업의지를 높이고 강화시켜야만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창업의지를 말하였으나, 본 연구는 단순히 창업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일종의 주의를 끄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에 ‘실제 창업을 하려는 의도’로 후자가 더욱 실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창업관심은 창업의지에 비해 정적이며, 창업 전 과정을 두고 보았을 때 시기상으로도 초반부에 해당하는 심리라고 본 것이다. 반면 창업의도는 실제 사업으로 행동을 옮기겠다는 의지와 결심에 가깝기에, 창업관심 이후의 심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가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수를 분류하여 가설을 제시하였다.

Lanero et al.(2016)은 창업관심이 사회과학·인문학 등보다 경영·공학·생명과학 학생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도출하여 전공에 따라 창업관심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창업이나 경영 등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지원이 학생들의 창업관심과 창업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반면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학생들은 창업에 있어 더욱 높은 장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업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로도 이어진다.

또한 루마니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창업경험이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Georgescu & Herman, 2020). 국내에서도 김승환·양동우(2020)가 부모 특성 중 창업경험만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혀, 대학생들이 창업환경에 노출될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관계성을 예측하게 하였다.

부모의 창업경험이 자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업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창업을 하나의 고용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노출 메커니즘(exposure mechanisms)’이며(Carroll & Mosakowski, 1987), 두 번째는 부모의 창업이 경제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창업 진입률을 높인다는 ‘클로저 메커니즘(closure mechanisms)’이다

(Sorenson,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창업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녀가 진로로서 창업을 고민할 때 부모가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는 Lent et al.(1994; 2000)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과도 연결된다. SCCT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개인적·환경적·맥락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는데, 특히 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Lanero et al.(2015) 또한 SCCT가 진로를 결정하는 순차적 단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며 관심이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여 목표하는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자녀가 의지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창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부모는 스스로 창업을 경험하며 창업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자녀는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향후 대학생이 되어 창업을 새로운 진로로 고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여기서 SSCT를 바탕으로 창업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녀의 창업에 대해 반응이나 태도를 보일 때 창업의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메커니즘을 가정하였다. 이에 앞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부모의 창업관심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TPB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

TPB 요인은 창업의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측변수이며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이어질 행동에 대한 예측변수이기 에 복잡한 경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PB와 행동의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된다(Kautonen et al., 2013). 즉 개인의 창업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TPB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Miralles et al., 2016).

Farooq et al.(2018)이 TPB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인지된 사회적지원과 창업의도 간 TPB 구성요소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u et al.(2020)에 따르면 창업자·현직자가 내부의 후계자에게 인계하려는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에서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adag & Sahin(2021)의 연구에서는 개인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지식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반면 주관적 규범은 개인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하여 창업지식에 대한 영향을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간접 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정대용 외(2018) 또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창업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주형·박병진(2014)은 TPB의 변수가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Ajzen(1991)이 주장한 TPB의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김예정·임지영(2019)은 TPB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은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역할모델, 주관적 규범 순이라고 하였으며, 진주형·박병진(2014)은 TPB의 변수가 역할모델 노출 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가족·지인의 역할모델에 대한 노출 경험이 TPB의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이처럼 TPB는 다양한 영역에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활동에서 비롯된 창업관심이 TPB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H3: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본인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본인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부모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부모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부모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부모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ESE의 조절효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개념이 창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연구자들은 이를 창업자기효능감(ESE)으로 표현하며 ‘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상황에서 창업과 연관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양준환·김춘광, 2020).

Kisubi et al.(2021)은 창업교육과 자영업의도(self-employment intentions)의 관계에서 ESE의 완충조절효과(buffering moderating effect)를 확인하였으며, Alsaïdan & Zhang(2018)도 ESE가 취업지도와 창업의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직업에 대한 지식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Ju & Zhou(2020)는 창업이벤트모델, TPB,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을 활용하여 중국의 제도적 환경과 창업의도 간 관계에서 ESE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ESE가 창업과 관련된 요인 간 조절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ESE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한다. 박정현(2022)이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유의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매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1: ESE는 창업의도에 대한 본인의 창업관심의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12: ESE는 창업의도에 대한 부모의 창업관심의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Pilot Study), 사전검사(Pretest), 본조사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23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태를 미리 조사하고 핵심요인의 추출과 가설을 명확하게 하는 목적을 수행하였다.

이어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차 사전검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와의 유사성을 위해 사전검사 역시 국내 대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0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검사를 거쳐 문항 배열순서, 용어의 개념, 문항의 내용이 나 문법 등을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응답자가 적절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누락 문항, 불필요한 내용 등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언어구성을 다듬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조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3년 9

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창업, 창업동아리, 크라우드펀딩, 창업공모전 등 여러 교내·외 창업 활동을 통해 창업관심을 가지게 된 이들이었다. 본조사에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사이트, SNS 등을 통해서 총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18부를 제외하여 총 282부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자료분석 도구로 SPSS 26과 AMOS 26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변인의 구성과 모형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덧붙여 AMOS를 활용한 가설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 2,000회 반복,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토했다.³⁾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첫째, 창업관심은 '창업활동에 대한 주의 또는 흥미'로 정의하였다.⁴⁾ 둘째, 부모의 창업관심이란 '창업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가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셋째, 태도는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정의되기에(Ajzen, 1991), 창업에 대한 태도를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창업'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주관적 규범은 '창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회에 느끼는 압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주관적 규범이 주로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Ajzen, 1991; Ajzen & Fishbein, 1980).⁵⁾

다섯째,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촉진 또는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요소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믿음을 의미한다(Ajzen, 1991).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최근 연구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는 점에 차이를 둔다(Liñán & Chen, 2009). 이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창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여섯째, ESE는 역할과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창업자의 자신감과 믿음을 의미한다(Zhao et al., 2005). 이를 참조하여 ESE를 '창업자가 창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감 또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Bird(1988)는 창업의도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이미 설립된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려는 의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5개의 항목을 Likert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연구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은 69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213명으로 75.5%를 차지하였다.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문학이 43명(15.2%), 음악이 33명(11.7%), 무용이 11명(3.9%), 미술이 119명(42.2%), 사진이 7명(2.5%), 연극영화가 25명(8.9%), 대중예술이 44명(15.6%)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분포는 4년제 재학생이 258명(9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재학생은 24명(8.5%)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35명(12.4%), 2학년이 48명(17.0%), 3학년이 73명(25.9%), 4학년이 126명(44.7%)으로 확인되었다. 부의 최종 학력은 석·박사 이상이 30명(10.6%), 대학교 졸업이 174명(61.7%), 고등학교 졸업이 66명(23.4%), 중학교 졸업 이하가 12명(4.3%)이었으며, 모의 최종학력 분포는 석·박사 이상 29명(10.3%), 대학교 졸업 132명(46.8%), 고등학교 졸업 115명(40.8%), 중학교 졸업 이하 6명(2.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월평균 수입은 200만 원 미만이 16명(5.7%), 200~350만 원 미만이 43명(15.2%), 350~500만 원 미만이 58명(20.6%), 500~650만 원 미만이 66명(23.4%), 650만 원 이상이 99명(35.1%)으로 분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69	24.5
	여	213	75.5
전공	문학	43	15.2
	음악	33	11.7
	무용	11	3.9
	미술	119	42.2
	사진	7	2.5
	연극영화	25	8.9
	대중예술	44	15.6
학력	4년제 재학	258	91.5

3) 자료의 공변량에 결측치(Missing Value)가 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분석하게 된다면 표본수의 감소로 인해 검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결측치를 단순히 제거하기보다는 그럴듯한(Plausible)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유한나,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0명 이하의 표본 수를 고려하여 단 일 대체법(Single Imputation)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결측치를 하나의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길곤·탁현우, 2016).

4) 본 연구에서 측정된 창업관심은 창업, 창업동아리, 크라우드 펀딩, 창업공모전 등 다양한 창업활동(창업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5) 본 연구에서 부모의 창업관심이 부모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된 데 반해 주관적 규범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 배우자(연인), 지인 등 해당하는 대상의 범주가 더욱 넓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지만 부모의 창업관심은 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도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창업동아리나 크라우드 펀딩 등 대학생이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기업을 승계하는 행위, 부모의 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자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이 해당된다.

	전문대 재학	24	8.5
학년	1학년	35	12.4
	2학년	48	17.0
	3학년	73	25.9
	4학년	126	44.7
부 최종학력	석·박사 이상	30	10.6
	대학교 졸업	174	61.7
	고등학교 졸업	66	23.4
	중졸 이하	12	4.3
모 최종학력	석·박사 이상	29	10.3
	대학교 졸업	132	46.8
	고등학교 졸업	115	40.8
	중졸 이하	6	2.1
가구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6	5.7
	200-350만원 미만	43	15.2
	350-500만원 미만	58	20.6
	500-650만원 미만	66	23.4
	650만원 이상	99	35.1
	전체		100.0%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4.2.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별 측정지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SPSS 26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분산을 이용하여 전체 자료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최소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회전 방식은 오블리민(oblimin)을 사용하였다. 최소제곱법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기반으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요인을 추출한다(Fabrigar & Wegener, 2012).

오블리민 회전방식은 직교 회전방식과는 달리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제 연구 상황에서 변수들이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닌 경우에 적합하다(Costello & Osborne, 2005).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상관성이 전혀 없다는 가정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블리민 회전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변수들의 구조적 특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향상시킨다.

요인적재량 기준은 0.4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 규범 5, 지각된 행동통제 1, 5, ESE 1, 2, 8, 창업의도 1문항이 삭제되었다. 요인적재량이 낮은 변수를 삭제한 이후, 최종적으로 KMO(Kaiser-Meyer-Olkin) 수치는 1에 가까운 0.925로 나타났다. KMO 수치는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0.6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0.8 이상이면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된다(Field,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KMO 수치인 0.925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충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9599.484(p<.001)$ 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가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통계적 검정이다. p 값이 0.05 이하일 경우, 해당 데이터 세트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χ^2 값과 p 값은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높게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추출된 7개의 요인의 분산비율은 65.94%로 적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1	2	3	4	5	6	7
본인의 창업관심 1	0.96						
본인의 창업관심 2	0.969						
본인의 창업관심 3	0.978						
본인의 창업관심 4	0.969						
본인의 창업관심 5	0.984						
부모의 창업관심 1		0.870					
부모의 창업관심 2		0.930					
부모의 창업관심 3		0.849					
부모의 창업관심 4		0.822					
부모의 창업관심 5		0.876					
창업에 대한 태도 1			0.720				
창업에 대한 태도 2			0.776				
창업에 대한 태도 3			0.811				
창업에 대한 태도 4			0.650				
창업에 대한 태도 5			0.794				
주관적 규범 1						0.620	
주관적 규범 2						0.700	
주관적 규범 3						0.611	
주관적 규범 4						0.564	
지각된 행동통제 2							0.753
지각된 행동통제 3							0.810
지각된 행동통제 4							0.460
ESE 3					0.657		
ESE 4					0.484		
ESE 5					0.703		
ESE 6					0.643		
ESE 7					0.606		
창업의도 2				0.637			
창업의도 3				0.874			
창업의도 4				0.651			
창업의도 5				0.753			
제곱할 부하량	5.073	3.969	3.815	3.917	3.382	2.515	2.387
분산비율(%)	13.349	10.444	10.039	10.309	8.9	6.618	6.281
누적비율(%)	13.349	23.793	33.833	44.141	53.041	59.659	65.94
Bartlett $\chi^2=9599.484 (p<.001)$ KMO =.925							

4.2.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변인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창업관심에 대한 평균값은 0.502이며, 표준편차는 1.265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989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Cronbach's α 는 측정 도구의 항목들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0.7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부모의 창업관심의 평균값은 1.199, 표준편차는 1.403이며, 내적신뢰도는 0.932로 측정되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평균 3.511, 표준편차 0.873, 내적신뢰도는 0.909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의 평균은 3.065, 표준편차는 0.840이며, 내적신뢰도는 0.786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평균 2.279, 표준편차 0.945로, 내적신뢰도는 0.847로 나타났다. ESE는 평균값이 3.304, 표준편차는 0.776이며, 이 변인의 내적신뢰도는 0.813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에 대한 평균값은 2.616, 표준편차는 1.115로 나타났으며, 내적신뢰도는 0.916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이 높은 내적신뢰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각 변인의 통계적 특성 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본인의 창업관심	0.502	1.265	0.989
부모의 창업관심	1.199	1.403	0.932
창업에 대한 태도	3.511	0.873	0.909
주관적 규범	3.065	0.840	0.786
지각된 행동통제	2.279	0.945	0.847
ESE	3.304	0.776	0.813
창업의도	2.616	1.115	0.916

4.2.3.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분석 결과로 토대로 AMO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기초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 터커 루이스 지수=NNFI(Non Normed Fit Index, 비표준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제곱근 평균제곱오차)를 확인하였다. 이 지표들은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와 개별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이다.

χ^2 (Chi-square)는 모형의 예측치와 관측치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값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큰 표본에서는 유의

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적합지수(Fit Index)는 0.8 이상일 때 모형 적합도가 보통, 0.9 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과 데이터 간의 근사 오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0.05 이하의 값을 가질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며, 0.05에서 0.08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χ^2 (CMIN)의 값은 576.297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이 데이터에 완벽히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이 지표만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χ^2/df 의 비율은 2.217로, 일반적으로 2~3 범위 내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모형은 데이터에 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GFI(Goodness of Fit Index)의 값은 .86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보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NFI(Normed Fit Index)는 .925로, 0.9 이상의 값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IFI(Incremental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은 각각 .957로 나타나 이들 또한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된다. TLI(Tucker-Lewis Index) 값은 .951로 0.9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66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 모형의 적합도가 좋고, 0.05에서 0.08 사이는 적당하다고 평가되므로, 본 연구모형은 데이터에 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모형은 주어진 데이터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매개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구분	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χ^2 (CMIN) /p값	576.297 / .000	$p > 0.05$	연구기실 채택
χ^2/df	2.217	$1.0 \leq \chi^2/df \leq 2.0 \sim 3.0$	적합
GFI	.860	≥ 0.9 (적합), ≥ 0.8 (보통)	적합
NFI	.925	≥ 0.9 (적합), ≥ 0.8 (보통)	적합
IFI	.957	≥ 0.9 (적합), ≥ 0.8 (보통)	적합
TLI	.951	≥ 0.9 (적합), ≥ 0.8 (보통)	적합
CFI	.957	≥ 0.9 (적합), ≥ 0.8 (보통)	적합
RMSEA	.066	≤ 0.05 (양호), 0.08(수용가능)	수용가능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모형에서 잠재변수의 구성 개념과 관측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각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해당 잠재변수가 적절하게 해당 관측변수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각 관측변수가 해당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Fabrigar et al., 1999). 유의성(t) 값은 요인부하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관측변수에 대해 1.9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대표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잠재변수의 총 분산 중 해당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0.5 이상일 경우 해당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의 분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잠재변수에 대한 AVE 값이 0.5를 상회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잠재변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0.7 이상일 경우 해당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들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Nunnally, 1978).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모든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값 및 개념신뢰도 값들이 각각의 기준치를 만족시키므로, 본 연구모형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매개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t)	C.R.(70 이상)	AVE (50 이상)
		B	β				
본인의 창업관심	본인의 창업관심1	1	0.959			0.99	0.95
	본인의 창업관심2	1.096	0.984	0.023	48.151***		
	본인의 창업관심3	0.976	0.976	0.022	45.120***		
	본인의 창업관심4	0.995	0.979	0.022	46.114***		
	본인의 창업관심5	1.111	0.975	0.025	44.688***		
부모의 창업관심	부모의 창업관심1	1	0.886			0.942	0.764
	부모의 창업관심2	1.148	0.88	0.054	21.366***		
	부모의 창업관심3	1.048	0.801	0.059	17.714***		
	부모의 창업관심4	0.732	0.881	0.034	21.421***		
	부모의 창업관심5	0.823	0.918	0.035	23.490***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태도1	1	0.832			0.911	0.672
	창업에 대한 태도2	1.036	0.851	0.060	17.216***		
	창업에 대한 태도3	1.004	0.812	0.063	16.058***		
	창업에 대한 태도4	1.121	0.790	0.073	15.413***		
	창업에 대한 태도5	0.995	0.813	0.062	16.081***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1	0.784			0.788	0.554
	주관적 규범2	0.880	0.682	0.083	10.625***		
	주관적 규범3	0.918	0.763	0.078	11.697***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2	1	0.838			0.850	0.655
	지각된 행동통제3	1.034	0.817	0.069	14.926***		
	지각된 행동통제4	0.96	0.772	0.069	13.989***		
창업의도	창업의도2	1	0.800			0.919	0.739
	창업의도3	1.161	0.877	0.067	17.283***		
	창업의도4	1.147	0.824	0.072	15.839***		
	창업의도5	1.234	0.931	0.066	18.737***		

다음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이다. Fornell & Larcker(1981)는 판별타당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이 관련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인의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을 취한 값이 다른 변인과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변인 사이에 판별 타당성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모형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볼드체 수치는 변인의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다. 해당 숫자가 종과 횡의 변수 간 상관관계값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별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결과

	본인의 기업가적 관심	부모의 기업가적 관심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의도
본인의 창업관심	0.975					
부모의 창업관심	0.335	0.874				
창업에 대한 태도	0.240	0.161	0.820			
주관적 규범	0.250	0.208	0.711	0.744		
지각된 행동통제	0.530	0.383	0.333	0.381	0.809	
창업의도	0.396	0.295	0.684	0.605	0.684	0.860

4.2.4. ESE 조절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ESE에 따른 각 변인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ESE의 평균을 기준으로 ESE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대상을 재군집하였다. 이어 ESE 조절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χ^2 (CMIN)/p값은 730.093으로 p값은 0이었다. 적합도 기준은 $p > 0.05$ 이므로, 본 결과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χ^2/p 값 측면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χ^2/df 는 1.698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1.0에서 3.0 사이의 값이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GFI는 .822로, NFI는 .871로 나타났는데 두 지표

모두 0.8 이상이면 보통, 0.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GFI와 NFI는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인다. IFI는 .943, TLI는 .931, CFI는 .942로 모두 0.9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이들 지표는 모두 적합한 수준이다. RMSEA는 .050으로 나타났다. 0.05 이하면 양호하며, 0.08 이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RMSEA 결과는 양호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ESE 조절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구분	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chi^2(\text{CMIN})/p$ 값	730.093/0	$p > 0.05$	부적합
χ^2/df	1.698	$1.0 \leq \chi^2/df \leq 2.0 \sim 3.0$	적합
GFI	.822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보통
NFI	.871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보통
IFI	.943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TLI	.931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CFI	.942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RMSEA	.050	$\leq 0.05(\text{양호}), 0.08(\text{수용가능})$	양호

다음으로 ESE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동질성을 검사하였다. 측정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제약 하에서 분석된 모델의 χ^2 값은 765.154, 자유도는 447, p값은 0으로 나타났다. GFI는 .817, NFI는 .865, IFI는 .939, TLI는 .930, CFI는 .938, 그리고 RMSEA는 .050으로 계산되었다. 두 모형 간의 χ^2 차이는 35.061이며,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ESE를 조절변수로 설정한 모델의 동질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 ESE 조절 모형의 동질성 검사 결과

모형	χ^2	df	p	GFI	NFI	IFI	TLI	CFI	RMSEA
Unconstrained	730.093	430	0	.822	.871	.943	.931	.942	.050
Measurement weights	765.154	447	0	.817	.865	.939	.930	.938	.050
Comparison	35.061	.006							

4.3. 가설검정 및 분석결과

4.3.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정을 위해 독립변수인 대학생의 창업관심, 부모의 창업관심과 매개변수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종속변수인 창업의도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9>와 같다. $\chi^2(\text{CMIN})/p$ 값과 χ^2/df 는 부적합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지수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7). 절대적합지수(GFI, NFI, IFI, TLI, CFI)는 0.8 이상일 때 보통, 0.9 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GFI=0.837,

NFI=0.908, IFI=0.940, TLI=0.932, CFI=0.940 등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RMSEA는 0.05일 때 양호하며 0.08 이하일 때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의 RMSEA는 0.077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연구모형이 우수한 적합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9>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chi^2(\text{CMIN})/p$ 값	705.926/0	$p > 0.05$	부적합
χ^2/df	2.684	$1.0 \leq \chi^2/df \leq 2.0 \sim 3.0$	적합
GFI	0.837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보통
NFI	0.908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IFI	0.940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TLI	0.932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CFI	0.940	$\geq 0.9(\text{적합}), \geq 0.8(\text{보통})$	적합
RMSEA	0.077	$\leq 0.05(\text{양호}), 0.08(\text{수용가능})$	수용가능

본 연구는 Ajzen(1991)의 TPB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창업과 관련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본인의 창업관심과 창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B=0.139, \beta=0.210, t=3.216, p<0.001$)는 유의수준 0.05에서 본인의 창업관심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인의 창업관심과 주관적 규범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창업관심이 주관적 규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0.136, \beta=0.200, t=2.860, p=0.004$). 본인의 창업관심과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창업관심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B=0.329, \beta=0.452, t=7.400, p<0.001$).

부모의 창업관심과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창업관심이 주관적 규범($B=0.087, \beta=0.150, t=2.109, p=0.035$) 및 지각된 행동통제($B=0.144, \beta=0.232, t=3.810, p<0.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부모의 창업관심과 창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0.055, \beta=0.097, t=1.466, p=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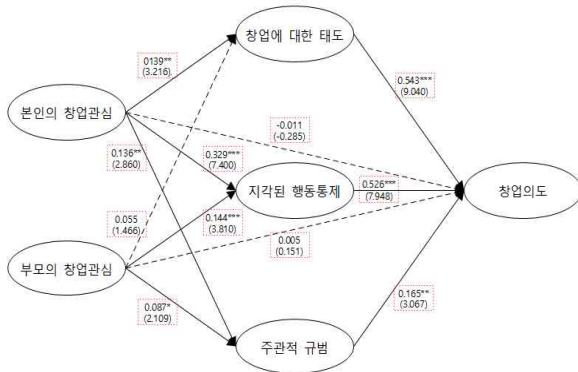
창업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B=0.543, \beta=0.496, t=9.040, p<0.001$), 지각된 행동통제($B=0.526, \beta=0.530, t=7.948, p<0.001$), 주관적 규범($B=0.165, \beta=0.155, t=3.067, p=0.002$)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 검정 결과

경로	B	β	S.E	t	P	결과
본인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0.139	0.210	0.043	3.216	0.001	채택
본인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0.136	0.200	0.047	2.860	0.004	채택
부모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0.087	0.150	0.041	2.109	0.035	채택
부모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0.144	0.232	0.038	3.810	***	채택
본인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0.329	0.452	0.044	7.400	***	채택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0.055	0.097	0.037	1.466	0.143	기각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	0.543	0.496	0.060	9.040	***	채택
본인의 창업관심 → 창업의도	-0.011	-0.015	0.039	-0.285	0.776	기각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의도	0.005	0.007	0.030	0.151	0.880	기각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의도	0.526	0.530	0.066	7.948	***	채택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0.165	0.155	0.054	3.067	0.002	채택

*** $p < .001$

이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가설이 유의미하게 채택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창업관심과 창업에 대한 태도, 본인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부모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경로

연구모형에 투입된 창업과 관련된 변인 간의 효과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인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beta=0.452$), 주관적 규범($\beta=0.200$), 창업에 대한 태도($\beta=0.210$)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의도에 대한 직접효과($\beta=0.015$)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beta=0.375$)를 통해 총 효과가 $\beta=0.360$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beta=0.232$)와 주관적 규범($\beta=0.150$)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창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beta=0.097$)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업의도에 대한 간접효과($\beta=0.195$)를 통해 총 효과가 $\beta=0.202$ 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본인의 창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종속변인인 창업의도와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개념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매개모형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창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그 영향이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완전매개모형에 부합한다. 반면 부분매개모형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매개변인을 통해 나타나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매개모형의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창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매개모형을 따르며, 특정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그 영향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의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1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경로	direct	indirect	total
부모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0.232***	0	0.232***
부모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0.150***	0	0.150***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0.097***	0	0.097***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의도	0.007***	0.195**	0.202***
본인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0.452***	0	0.452***
본인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0.200***	0	0.200***
본인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0.210***	0	0.210***
본인의 창업관심 → 창업의도	-0.015***	0.375**	0.360***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의도	0.530***	0	0.530***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0.155***	0	0.155***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	0.496***	0	0.496***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의 경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표본 내에서 복원추출 방식으로 여러 번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치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랩을 2,000회 실시하여 각 경로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부모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쳤다($B=0.076, p < .01$). 하한과 상한 범위가 각각 .034와 .129로 나타났는데, 이는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다. 부모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쳤다($B=.014, p<.05$). 하한과 상한 범위는 .001과 .045로 나타났으며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다.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030$ 로 나타났으며, 하한 -.011과 상한 .076의 범위를 갖는다. 이 범위는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다.

본인의 창업관심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B=.173, p<.001$), 하한과 상한 범위는 각각 .113과 .257로 나타났다.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다. 본인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쳤고($B=.022, p<.05$), 범위는 하한 .003과 상한 .059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다.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B=.075, p<.01$). 범위는 하한 .038과 상한 .122의 범위로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부트스트랩 결과는 독립변인들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특히 본인의 창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지각된 행동통제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2> 매개변인의 경로효과 검증

경로	B	하한	상한
부모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의도	.076***	.034	.129
부모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014***	.001	.045
부모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	.030***	-.011	.076
본인의 창업관심 →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의도	.173***	.113	.257
본인의 창업관심 →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022***	.003	.059
본인의 창업관심 → 창업에 대한 태도 → 창업의도	.075***	.038	.122

* $p<.05$ ** $p<.01$, *** $p<.001$

V. 결론

5.1. 연구의 요약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창업을 새로운 진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창업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창업관심을 다룬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창업관심을 연구대상자의 조건 중 하나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문체의식을 삼고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TPB 구성요인(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창

업관심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매개모형을 따르며, 특정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그 영향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창업관심을 가진 후 창업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부재한 채 무분별하게 대학생이 창업활동을 하기보다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아질 수 있는 양질의 창업활동을 경험해야 하며, 부모가 창업경험이 있다고 하여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TPB 요인과 부모의 창업경험을 연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창업관심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관심을 가진 이들이 창업활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 창업활동에 대해 주변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인식, 스스로 창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통해 창업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의 창업관심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이 부모의 창업경험을 접한 이후, 자신이 창업활동을 시도할 때 주변인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인식과 자신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학생이 부모를 통해 창업을 인식하고 부모 또한 자녀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창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다룬 요인의 연관성과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는 바이다. 더불어 개인의 과거 창업활동 경험이나 부모의 창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창업을 향후 진로로 삼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부합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창업관심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되어줄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활동을 통해 발현된 창업관심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TPB 구성요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 TPB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창업활동에서 TPB 요인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모의 창업관심’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역시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스스로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사이의 매개효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부모의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 요인 사이 관계에서 매개요인의 세부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대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창업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매개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창업지원이 대부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라는 새로운 요인의 중요성까지 부각했다는 점에서 창업지원 정책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실무적 의의를 더한다.

셋째,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관심과 창업의도를 통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의 정도와 감정이 발현되는 시기에 따라 창업관심과 창업의도가 상이하므로 두 요인이 다르다고 보았다. 이처럼 요인 간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연구의 차별성을 더한다. 그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본인의 창업관심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창업관심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동시에 다루어, 대학생이 창업의도를 지니게 되기까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넷째, 창업 분야에서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타 전공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처우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졸업 이후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진로로 고민하는 수가 많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관련 연구는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자 향후 문화예술창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적 의의까지 지니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창업관심은 사회과학·인문학 등보다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경영·공학·생명과학 학생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관심을 높일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5.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앞서 논의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양적연구로서 2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와 같은 표본을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창업관심과 창업의도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ESE의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모델의 동질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아, 후속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표본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였으나, 부모 또는 본인의 창업활동 경험에 기반한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와 실제 창업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들이 졸업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창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대학생과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창업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명확한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창업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부모의 창업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집단별로 분리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창업경험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창업동아리 등 창업과 관련있는 유사한 활동을 모두 창업활동으로 살펴보았으나 이 범주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언을 토대로, 향후의 연구는 더욱 양질의 연구 가치를 지니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

고길근·탁현우(2016). 설문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다중대체법과 재조사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4(4), 291-319.

기홍석(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김상범·최기현·배준호(2018). 관광위험지각과 태도, 구매의도 및 전환의도 간의 관계성 연구: 서울지역 여행사 직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3), 69-80.

김상수·임왕규(2017).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101-115.

김승환·양동우(2020). 가계재정의 인지도, 만족도, 부모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3(7), 1293-1317.

김영서·홍세희(2021). 청소년 창업체험활동 참여의 잠재계층과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2), 5-29.

김예정·임지영(2019). 계획된 행동이론 기반 간호대학생의 창업의

- 도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5(3), 175-185.
- 김윤선·이일한(2022).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기회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7(2), 189-213.
- 김정환·김남조(2021). 치유의 숲을 이용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치유관광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45(6), 115-138.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 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김진호·홍세희·추병대(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연구와 비판. *경영학연구*, 36(4), 897-923.
- 김태경(2019). 기업을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95-104.
- 김홍범·윤진영·이재형(2012).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14(1), 67-81.
- 박정현(2022).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7(3), 51-76.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선량·허철무(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 신상훈·정기주·김문준(2020). 폴리텍대학 재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성동기, 진로결정성준과의 구조관계 분석. *기업경영리뷰*, 11(3), 171-189.
- 심상훈·정경일(2021). 자연테마관광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체험요소가 관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5(2), 37-56.
- 안은주·양동우(2020).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3), 275-304.
- 안혜진(2024). *대학생과 부모의 기업가적 관심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양준환·김춘광(2020).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이중매개모형. *대한경영학회지*, 33(3), 443-461.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유한나(2018). 결측치가 있는 군집화된 생존 자료에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이용한 예측모형 개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5), 1119-1126.
- 윤영집·이종원(2022). 대학생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41(1), 23-42.
- 이선미(2011). 항공예약시스템 이용자의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 항공사와 여행사 CRS실무자의 관계차이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2(1), 115-141.
-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회계교육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와 정책연구*, 19(3), 171-190.
- 이재은·강지원·김춘광(2017).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3), 193-214.
-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장현철·김중성(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43-55.
- 정대용·김영수·김지혜(2018). 주관적 규범이 창업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Linan and Chen(2009)'s EIM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3(1), 183-204.
- 정대용·김재형(2017). 창업실패관련 행동적 평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4), 145-163.
- 정대용·양준환·김춘광(2013). 자기효능감이 창업참여도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8(5), 543-572.
- 정대용·한관섭(2012).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창업결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34(1), 97-119.
- 정도범(2019).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 *노동정책연구*, 19(3), 93-127.
- 정행로·양동우(2021).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4(7), 1149-1181.
- 정헌배·이현우·이현경(2019). 대학생 창업교육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형식학습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138-159.
- 조영조·이보영 (2016).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 조윤아·박민규·문윤걸(2015). 창업교육 전후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 M대학교 시니어창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1), 433-446.
- 조지혜(2021).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과 개입요인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28(11), 421-449.
- 조성환·김길보·유형근·김성식(2009).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한 청소년 정보통신윤리 실천 행동의도의 분석. *중등교육연구*, 57(2), 1-30.
-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 최옥희·박종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35-50.
- 최재혁·이용택(2018). 고등학생의 부모관심, 진로정체감,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진로대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3), 175-199.
- 현선해·서문교·권인수(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39-49.
- Ahn, E. J., & Yang, D. W.(2020).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nd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amall Business*, 42(3), 275-304.
- An, H. J.(2024).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ial Interests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in Culture and Ar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NJ: Prentice-Hall.
- Al-Jubari, I., Hassan, A., & Liñan, F.(2019).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Malaysia: Integrat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 Management Journal*, 15(4), 1323-1342.
- Alsaidan, S., & Zhang, L.(2018). How students describ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uman Systems Management*, 37(1), 45-55.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Bae, B. R.(201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4*. Seoul: Book Publishing Cheongram.
- Bandura, A.(1977a).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77b). *Social learning theory*. NJ: Prentice-Hall.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J: Prentice-Hall.
- Barrios, G. R. E., Rodriguez, J. F. R., Plaza, A. V., Zapata, C. V. P., & Zuluaga, M. E. G.(2022).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olombia: Exploratio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97(3), 176-185.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4.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arroll, G. R., & Mosakowski, E.(1987). The career dynamics of self-employ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4), 570-589.
- Cho, S. H., Kim, K. M., Yu, H. K., & Kim, S. S.(2009). The Analysis of Behavioral Intention to Perform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of Adolescent through TPB.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7(2), 1-30.
- Cho, Y. J., & Lee, B. Y.(2016).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7-25.
- Choi, J. H., & Lee, E. T.(2018).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oncer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in High School Students-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Conversation with Parents. *Forum For Youth Culture*, (53), 175-199.
- Choi, W. H., Park, J. H., & Kim, N. H.(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a university's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Chung, D. B.(2019). Major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College Graduates: Comparison and Analysis According to Regular Worker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9(3), 93-127.
- Chung, D. Y., & Han, K. S.(2012). Effect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Outcome Satisfaction Mediated by Growth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4(1), 97-119.
- Chung, D. Y., & Kim, J. H.(2017). The Effect of Behavioral Evaluation for Entrepreneurial Failur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4), 145-163.
- Chung, D. Y., Kim, Y. S., & Kim, J. H.(2018).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by Person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cusing on Linan and Chen(2009)' EI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1), 183-204.
- Chung, D. Y., Yang, J. H., & Kim, C. K.(2013).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hinese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8(5), 543-572.
- Costello, A. B., & Osborne, J. W.(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7), 1-9.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unn, T., & Holtz-Eakin, D.(2000). 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intergenerational link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2), 282-305.
- Fabrigar, L. R., & Wegener, D. T.(201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 Farooq, M. S., Salam, M., Rehman, S. U., Fayolle, A., Jaafar, N., & Ayupp, K.(2018). Impact of support from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resh business graduat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Education and Training*, 60(4), 335-353.
- Fayolle, A., & Gailly, B.(201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Hysteresis and persist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1), 75-93.
- Field, A.(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LA: Sage.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lanakis, K. & Giourka, P.(2017). Entrepreneurial path: Decoupling the complexity of entrepreneurial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3(2), 317-335.
- Georgescu, M. A., & Herman, E.(2020). The impact of the family background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 empirical analysis. *Sustainability*, 12(11), 1-18.
- Gieure, C., Benavides-Espinosa, M. D., & Roig-Dobón, S.(2019).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an international

- university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5(8), 1605-1620.
- Gird, A., & Bagraim, J. J.(2008).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s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st final-year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8(4), 711-724.
- Heuer, A., & Kolvereid, L.(2014).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38(6), 506-523.
- Hmieleski, K. M., & Corbett, A. C.(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45-63.
- Hyun, S. H., Seo, M. K., & Kwon, I. S.(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39-49.
- Jang, H. C., & Kim, J. S.(2021). The Impa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43-55.
- Jeong, H. B., Lee, H. W., & Lee, H. K.(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6), 138-159.
- Jin, J. H., & Park, B. J.(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 Jo, J. H.(2021). A Study on the Start-up Decision Process and Meditat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1), 421-449.
- Jo, Y. A., Park, M. K., & Moon, Y. G.(2015). A Study on Recognition for Foundatio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 of senior foundation education in M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33-446.
- Ju, W., & Zhou, X. H.(2020).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academics in Chin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8(4), 1-15.
- Jung, H. R.,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4(7), 1149-1181.
- Karadag, H., & Sahin, F.(2021). Can managers become entrepreneur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Administration*, 38(2), 193-208.
- Katz, J., & Gartner, W. B.(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autonen, T., Van Gelderen, M., & Fink, M.(2015). Robustnes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predi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3), 655-674.
- Kautonen, T., Van Gelderen, M., & Tornikoski, E. T.(2013). Predic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lied Economics*, 45(6), 697-707.
- Kim, H. B., Yoon, J. Y., & Lee, J. H.(2012). The Influence of Perceived Risk, Subjective Norm of Overseas Travel o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Application of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4(1), 67-81.
- Ki, H.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Efficacy and the Business Failure Burde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Kim, J. H., Hong, S. H., & Choo, B. D.(2007).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nagement Studies: A Critical Review. *Korean management review*, 36(4), 897-923.
- Kim, J. H., & Kim, N. J.(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 Aged Healing Forest Visito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of Healing Tourism: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5(6), 115-138.
- Kim, J. W.(2014).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79-87.
- Kim, S. B., Choi, K. H., & Bae, J. H.(2018). The relationship of tourism risk perceptio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Focused on tour agency employees in the Seoul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3), 69-80.
- Kim, S. H., & Yang, D. W.(2020).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Satisfaction of Household Finances,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7), 1293-1317.
- Kim, S. S., & Lim, W. K.(2017).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01-115.
- Kim, T. K.(20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ear to Start-up and Start-up Communities in Cla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95-104.
- Kim, Y. J., & Lim, J. Y.(2019).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5(3), 175-185.

- Kim, Y. S., & Hong, S. H.(2021). Classifying latent classes in youth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testing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amo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32(2), 5-29.
- Kim, Y. S., & Lee, I. H.(2022). A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mediating effect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7(2), 189-213.
- Kisubi, M. K., Bonuke, R., & Korir, M.(2021).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elf-employment intentions: A conditional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vidence from a developing country. *Cogent Business & Management*, 8(1), 1-15.
- Ko, K. K., & Tak, H. W.(2016). The Treatment of Missing Values using the Integrated Multiple Imputation and Callback Method.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4(4), 291-319.
- Kolvereid, L., & Isaksen, E.(2006). New business start-up and subsequent entry into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6), 866-885.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anero, A., Vázquez, J. L., & Aza, C. L.(2016). Social cognitiv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career choice in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34(8), 1053-1075.
- Lanero, A., Vázquez, J. L., & Muñoz-Adán, A.(2015). A social cognitive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university students. *Annals of Psychology*, 31(1), 243-259.
- Lee, J. E., Kang, J. W., & Kim, C. K.(2017). Do Pers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 193-214.
- Lee, J. H.(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Lee, S. M.(2011). According to the CRS technology expand capacit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rlines and travel agencies. *The e-business studies*, 12(1), 115-141.
- Lee, S. N.(2014).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Accounting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19(3), 171-190.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uis-Rico, M. I., Escolar-Llamazares, M. C., de la Torre-Cruz, T., Herrero, A., Jiménez, A., Val, P. A., Palmero-Cámara, C., & Jiménez-Eguizabal, A.(2020). The Association of Parental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with the Entrepreneurial Interest of Spanish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3), 1-16.
- Maheshwari, G., & Kha, K. L.(2022).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Vietnam: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0(2), 100533.
- Miralles, F., Giones, F., & Riverola, C.(2016). Evaluating the impact of prior experience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3), 791-813.
- Mungai, E., & Velamuri, S. R.(2011). Parental entrepreneurial role model influence on male offspring: Is it always positive and when does it occ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337-357.
- Neneh, B. N.(2022). Entrepreneurial pass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7(3), 587-603.
- Niittykangas, H., & Tervo, H.(2005). Spatial variat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employment. *Regional Studies*, 39(3), 319-332.
- Nikou, S., Brännback, M., Carsrud, A. L., & Brush, C. G.(2019).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Pathways to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11(3), 348-372.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Hill.
- Ozaralli, N., & Rivenburgh, N. K.(2016). Entrepreneurial intention: Antecedents to entrepreneurial behavior in the USA and Turkey.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6(3), 1-32.
- Paço, A., Ferreira, J.J., Raposo, M., Rodrigues, R.G., & Dinis, A.(2011). Behavio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mpirical findings about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9, 20-38.
- Park, J. H.(2022).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gnitive Attribut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3), 51-76.
- Pretorius, M., Millard, S. M., & Kruger, M. E.(2005). Creativity,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Management experience, venture size, life cycle stage, race and gender as moderators.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2(1), 55-68.
- Saeed, S., Yousafzai, S. Y., Yani-De-Soriano, M., & Muffatto, M.(2015).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1145.

- Sahin, F., Karadag, H., & Tuncer, B.(2019). Big five personality trai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 configur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5(6), 1188-1211.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1.
- Schmitt-Rodermund, E.(2004). Pathways to successful entrepreneurship: Parenting, personality, early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3), 498-518.
- Schmutzler, J., Andonova, V., & Diaz-Serrano, L.(2019). How context shap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 a drive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ultilevel approa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3(5), 880-920.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NJ: Prentice-Hall.
- Shaker, A. Z.(2018). Entrepreneurial risk taking in family firms: The wellspring of the regenerative capability. *Family Business Review*, 31(2), 216-226.
- Shan, L., & Heo, C. M.(2019).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7-137.
- Shim, S. H., & Chung, K. I.(2021). The influence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nature-themed tourism and experience elements on tourism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5(2), 37-56.
- Shin, S. H., Jeong, K. J., & Kim, M. J.(202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determining Motivation, Career Decision Making of Polytechnic Students.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11(3), 171-189.
- Sorenson, J. B.(2007). Closure versus exposure: Mechanism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employment. *The sociology of entrepreneurship*, 25, 83-124.
- Torres, J., & Watson, W.(201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in Mexican small businesses. *Contaduría y Administración*, 58(3), 65-87.
- Tsai, K. H., Chang, H. C., & Peng, C. Y.(2016). Extending the link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2), 445-463.
- Van Gelderen, M., Kautonen, T., & Fink, M.(2015).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actions: Self-control and action-related doubt, fear, and aver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5), 655-673.
- Wu, M. Y., Coleman, M., Rahaman, A. R. A., & Edziah, B. K.(2020). Successor selection in family business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cognitive dimension of social capital theory: Evidence from Gha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7(6), 905-926.
- Yang, J. H., & Kim, C. K.(202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Doubl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3), 443-461.
- Yoo, B. H.(2015).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51-60.
- Yoo, H. N.(2018). Prediction model for clustered survival data with missing covariates using decision tre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5), 1119-1126.
- Yoon, Y. J., & Lee, J. W.(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Self-Leadership, Innovative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41(1), 23-42.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on Intention*

HyeJin An**
SeungHa Lee***

Abstract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this study clarifies the entire lifecycle process leading up to a college student's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We explore whether an individual'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stemming from start-up activities and the interest of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s start-up affect start-up intention. For this purpose, attitude toward start-u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are component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were set as parameters. Furthermore, start-up self-efficacy was established as a moderating variabl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and their importance. In addition,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00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after excluding 18 insincere responses, a total of 282 were analyzed using SPSS 26 and AMOS 26.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 individual'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tart-up intention, mediated by attitude toward start-u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refore, future college start-up education should apply the components of TPB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nd various start-up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o foster students' interest. Secondly, parents' interest in start-u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refore, even if parents ar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start-up activities, such interes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favorable attitude. However, as it significantly impact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tart-up education targeting parents linked to these parameters could increase college student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s.

KeyWord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Parents'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Start-up intention, College student start-up

* This study is revised and supplemented by extracting some of the main author An Hye-jin's doctoral dissertation(2024).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nkuk University, ahj332@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hpoem@naver.com